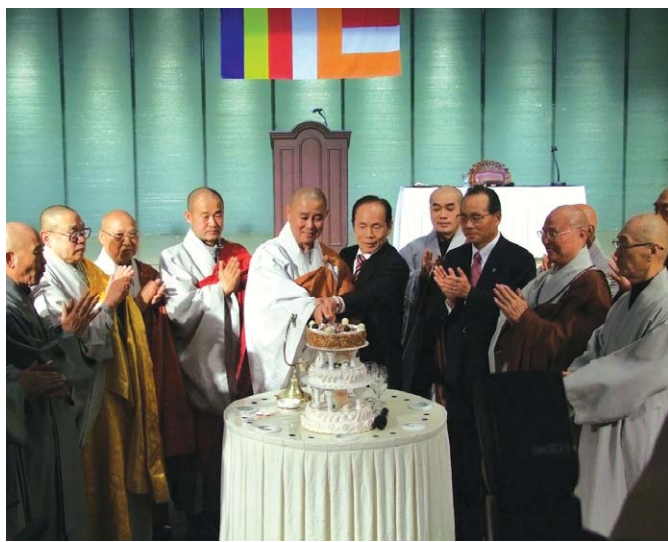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창립...회장에 설동근 부산교육감



11월 20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린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창립법회의 축하케이크 절단식. 가운데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과 설동근 교육감.

부산 불교계 14개 종단, 45개 사찰, 21개 신행단체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11월 20일 부산 농심호텔에서 창립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추진위원장 기조연설, 임시의장 선출, 정관심의결, 임원선출, 회장 수락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200만 부산 불자를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재가불자 대표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00만 부산 불자 뜻 받들어 정토 구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설동근 교육감

“부산의 200만 불자의 뜻을 받들어 불국정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초대회장 설동근 교육감이 소감과 앞으로의 구상을 털어냈다.

설동근 회장은 “부산시교육감이란 공직자의 신분으로 연합신도회까지 맡게 돼 애가 무겁다”

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출범한 오늘이, 자비를 통한 중생 구제와 정토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또 “이 모든 것은 부산지역 모든 대덕스님들과 재가불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발원할 때 원만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불교를 통해 한국불교를 바로 잡는데 연합신도회원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50돌 ‘vision2025’ 선포

기숙사·수행센터 ‘21세기 행복발전소 관악센터 건립’ 추진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가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생활·수행 공간 ‘21세기 행복발전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했다. 관악센터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숙사 및 수행센터로, 총불교학생회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과 불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11월 15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50주년 창립제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는 11월 15일 서울대교수회관에서 동문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0주년 기념 창립식을 열고 동문회 법인화와 서울대 총불 동문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 이를 위한 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그 밖에도 과거 활동사진, 현재 활동 모습을 담은 “총불 50주년을 말한다” 상영, 현재 스님(월정사 회주)의 동영상 축사, 재학생 축하 퓨전 음악 공연 등을 통해 선·후배 간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성태용(우리는선우 이사장) 총불교학생회 발전위원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불교와 자신의 모습을 항상 성찰해야 한다”며 “불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내일을 위해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날 2000만원을 약정한 명호근(성진지오택 회장) 총불교학생회 발전위원회 고문은 “자신의 구도 열정을 회향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며 “총불교학생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서서 변화의 선두주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 창립식을 위해 1년간 준비한 박기훈 총불 재학생 대표(경제학과 03학번)는 “학점취득 및 취업경쟁을

로 인해 다수 대학불교학생회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총불은 수련대회 및 불교 공부를 통해 서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왔고, 스스로도 학업과 생활면에서 눈에 띄는 현실적인 이득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는 1958년 11월 법대 불교학생회를 전신으로 창립했다. 1968년 1차 경주 분황사

수련대회를 기점으로 1990년대 후반까지 총 40회가 넘는 수련대회를 진행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 정기법회를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사찰에서 집중수련을 한다. 수련회에서는 고성염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인간관계, 성격문제 등을 해결해오고 있다. 정기법회 외에도 새벽기도를 하는 등 신심이 두텁다. 백경록(조경학과 07학번)씨는 “고성염불을 통해 복잡한 생각들이 모두 침잠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배들의 뒤를 이어 불법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성염불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고성으로 ‘나무야 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외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문출신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태용 교수(건국대),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김문환(前 국민대 총장), 신호철(운세통신 감사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50억 모연·고객만족대상 수상 東大 겹경사 일산에 아시아 최대 즐기세포 은행 설립도

로스쿨 선정 탈락으로 위축됐던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대학최초로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하고, 50여억 원 후원금을 모연하는 등 희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후원의 밤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해 50여억 원의 발전기금 약정을 했다. 14일 ‘즐기세포 은행’의 산학협동 파트너로 조인한 (주)휴립바이오셀(대표 성제경)이 30억원, 한의과 대학 동창회가 5억원, 정훈탁 IHQ 대표가 3억원을 약정했다.

일산 메디칼러스터 내에 휴립바이오셀로부터 160억원을 투입 받아 조성될 즐기세포 은행은 건강한 세포를 냉동보관하고 관리·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즐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320만 명의 세포를 보관해 관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오영교 총장은 “이번 산학협력은 동국대의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실용적 기술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세포치료제 분야에서만 큼은 동국대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고객 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수상도 수상했다. 박서진 CS경영팀장(동국대)은 “오영교 총장의 강력한 CS리더십과 부서장들의 솔선수범, 성과와 고객관리의 선진 시스템화 등으로 이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협 후원회’ 결성 포교원장 등 교계 원력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불교연인인을 지원해 불교인재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불교기자협회 후원회’를 결성한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불기협 후원회 기금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불기협에 기부할 3000만원에 기타 후원금을 모연해 조성된다. 불기협 후원회는 장학사업과 기자상 선정 등 불교연인인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한편 불기협 언론인 후원회 발족식은 12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앞 만복림 ‘불기협의 밤’ 행사에서 함께 열린다.

조동섭 기자

전국 사찰 불심으로 김장 버무리기



조계사(주지 세민)는 11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담근 1만4000 포기 김치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한다. 사진=박재원 기자

주요 사찰에서 불우이웃 돕기 김장 버무리기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1월 20일 1만4000 포기 김치는 종로구청을 통해 독거노인 등 불우한 이웃에게도 전달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11월 23-25일 6500포기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불우이웃 108 가정에 각각 김

장 김치와 라면 1박스를 전달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운산)도 18개 사찰과 복지단체에서 총 2만3000포기에 달하는 김장 김치를 불우이웃에게 나눠준다. 이밖에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11월 14일, 안양 한마음 선원이 11월 22-23일 김장김치행사를 진행하는 등 김장보시는 줄을 이을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개운사 문제 대책 마련할 것”

최문순 의원, 고려대 기숙사 공사현장 방문

고려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고려대 개운사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문순 의원(민주당 연동회장)이 11월 14일 공사현장을 찾아 범대 스님(개운사 주지), 초우 스님(보타사 주지)을 만났다.

최문순 의원은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북구청의 허가과정 및 석조마애불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범해 스님은 “문화재 훼손과 수행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불자들의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1월 13일 있었던 문화재영향 검토는 문화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조동섭·김진성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이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이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